

북한 역사학계의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의 수용과 ‘고대’ 논쟁의 종말*

이경섭**

- I. 머리말
- II.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의 수용
- III. ‘총체적 노예제’와 조선사의 ‘고대’
- IV. 『토론집』 간행 이후 논쟁의 경과
- V. 맺음말

【국문초록】

북한 역사학계에서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논쟁이 진행될 무렵, 마르크스의 遺稿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가 유입되었다. 당시 논쟁은 삼국 시기 노예제 사회설과 봉건제 사회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는 립건상과 백남운으로 대표되는 삼국 시기 노예제 사회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마르크스의 ‘총체적 노예제’는 조선사의 정체성론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早期 봉건사회설을 주장했던 김석형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조선사의 구체적이며 역사적인 현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이 논쟁은 고조선·부여 등을 고대 노예 소유자 사회로, 삼국시대를 봉건사회로 서술한 『조선통사(상)』(1962)가 간행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의 이론적 근거는 조선 고대사의 역사에서 형식적으로 채용되었다. 조선사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고대’ 논쟁의 경과와 종말은, 이후 북한 역사학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으로부터 굴절되고 왜곡되는 중요한 계기이자 분기점이 되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3049 762)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주제어 : 북한 역사학,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 총체적 노예제, 김석형, 림건상

I. 머리말

해방 이후 북한 역사학의 시급한 과제는 식민주의 역사학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조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1947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조선력사편찬회를 설립하고, ‘가장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사상에 의거하여 조선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옹게 표현’ 하는 역사서를 편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¹⁾ 북한 정부 수립 이후 조선력사편찬회는 ‘조선력사 편찬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사관에 입각한 진정한 조선민족의 역사를 단시일내에 편찬하기 위하여’ 교육성 산하의 조선력사편찬위원회로 다시 설치되었다.²⁾

조선력사편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최근세사를 1949년 3월 말까지, 통사를 1949년 12월 말까지 편찬하는 것이었다.³⁾ 그 결과 최근세사는 1949년 11월 『조선민족해방투쟁사』로 간행되었고,⁴⁾ 통사를 편찬하기 위한 노력은 1951년 11월 『조선고대사』⁵⁾와 1954년 『조선중세사(상)』⁶⁾ 및 1956년 『조선중세사(하)』⁷⁾ 등을 간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 12월 과학원이 개원하면서 그 산하에 설치된 역사연구소가 조선력사편찬위원회 사업을 인계받아 조선력사편찬위원회의 일차적인 편찬 사업을 마무리한 것이다. 나아가 최종적인 통사는 1956년 4월 『조선통사(상)』의 간행으로 현실화된다.

그러나 1956년판 『조선통사(상)』는 이미 「서문」에서 고조선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회 구성 및 시대 구분에 관한 문제들을 해명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⁸⁾ 관련 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한 합평회에서조차 고조선 사회의 성격 문제·삼국의 국가 형성 시기 문제 및 삼국시대의 사회 경제 구성에 관한 문제들이 앞으로의 중요한 논의 주제로 남게 되었다⁹⁾고 하였다.

1) 김준엽 편, 2010,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 決定 제182호(1947.2.7) : 朝鮮歷史編纂會에 關한 決定書」, 『북한 연구자료집』,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508-509쪽.
2) 朝鮮歷史編纂委員會, 1949,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 決定 제2호(1948.10.2) : 朝鮮歷史編纂委員會에 關한 決定書」, 『歷史諸問題』 5.
3) 위의 주 2).
4) 장세운, 2004 참조.
5) 림건상, 1955-1, 89-95쪽. 여기에서 『조선고대사』를 조선력사편찬위원회의 집체적 로작이라고 언급하였다.
6) 김세익, 1955-1, 95-101쪽. 이 책은 편집부, 1955-8에 박경수를 저자로 국립출판사에서 간행하였다고 표기되었다.
7) 이 책은 박시형의 저술로 알려진다.
8)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6, 1-3쪽.
9) 편집부, 1956-6, 91-93쪽.

이후 이와 같은 문제들은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거치면서 표면적으로는 1962 년판 『조선통사』의 간행으로 해소되는¹⁰⁾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논쟁이 격화되는 시점에 유입된 마르크스(Karl Marx)의 遺稿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이하 『제형태』)가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조선사 해석에 적용되었는가이다. 『제형태』는 마르크스가 『자본』을 집필하기 위해 1857 년에서 1858 년 사이에 쓴 방대한 手稿인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가운데 일부이다.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서 아시아적, 고전고대적, 게르만적 사회 유형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이론적 전거로 활용되었다. 북한의 역사학자들은 『제형태』의 言說을 조선사에 적용하면서 論戰에 참여했지만, 과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적이며 이론적인 집체적 토론의 결과로써 『조선통사(상)』(1962)가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이 글은 필자가 가지게 된 위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먼저 북한에서의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논의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서 『제형태』가 수용되는 과정과, 이를 전거로 형성되었던 이론적·역사적 논점들이 북한 역사학계가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조선통사(상)』(1962)의 간행으로 귀결되어 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시로서는 새롭게 알려진 마르크스의 원전인 『제형태』에 대한 북한 역사학자의 시각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면 북한 역사학의 궤적과 지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쟁의 내용¹¹⁾보다는 논쟁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의 『제형태』에 대한 해석과 조선사에서의 적용 과정을 중심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자본주의적 생산에 선행하는 제형태』의 수용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을 둘러싼 논의는 식민지시대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改造社, 1933) 간행에서 기원한다. 백남운은 조선의 경제적 사회 구성의 발전과정을 원시씨족공산제 사회, 노예제사회(삼국정립기), 아시아적 봉건제사회(삼국시기~최근세), 외래자본주의 단계로 체계화하였다. 조선사를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관점에서 최초로 분석한 이 저작은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에게 일원론적 역사법칙을 한국사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적용시킨 공식주의라는 비판을 초래하였다. 이들 가운데 김광진은 고구려에서는 3세기까지 씨족제도와 공동체 관계가 지배적이었고, 4세기에는 공납제적 수취관계가 우세했기 때문에 경제제도로서의 노예제는 존재했지만 사회구성으로서의 노예제 사회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나아가 5세

10) 과학원 력사연구소, 1962.

11) 논쟁의 내용은 다음 글들에 잘 정리되었다. 정찬영·김세익, 1961-3 ; 노태돈, 1991 ; 박경철, 1994.

기에 접어들어 속민제와 공납제를 기반으로 점차 국가를 형성하여 봉건제사회로 직접 이행하였다는¹²⁾ 노예제 결여론의 입장에서 백남운의 역사체계를 비판하였다.¹³⁾

즉, 백남운의 노예제 사회 서술은 전형적인 그리스-로마의 노예제 사회를 연상시키면서 마르크스주의 신진 연구자들을 자극하였으나¹⁴⁾ 이후 여러 가지 사정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해방 이후에야 북한 역사학계가 해명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다시 제기되었다.¹⁵⁾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53년 가을에 열린 사회과학자대회에서 역사학자들은 고대 조선의 노예제 사회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여기에서 김광진은 조선 역사상 노예제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55년 김광진은 「조선에 있어서의 봉건제도의 발생 과정(상·하)-노예 소유자적 구성의 존부 여하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라는 장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¹⁶⁾ 이에 대하여 도유호가 비판하면서¹⁷⁾ 논쟁은 격화되었다. 곧이어 김광진의 반론이 이루어졌는데,¹⁸⁾ 이 글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마르크스의 『제형태』가 인용되면서 북한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형태』가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이론적 근거로 활용된다.

김광진의 문제제기와, 도유호의 비판에 따른 김광진의 반론이 신속하게 전개되면서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른바 노예제론자와 봉건제론자로 연구자들을 진영화하면서 대규모 토론회의 형태로 이루어진다.¹⁹⁾ 그 결과 195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역사연구소에서 17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모여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이때의 토론 내용이 1958년 3월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과학원출판사, 이하 『토론집』)으로 간행되었다.²⁰⁾ 여기에서 대부분의 필자들은 『제형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당시 연구자들이 인용했던 『제형태』의 확인되는 판본은 다음과 같다.

- 소련판, 1940²¹⁾ : 김광진, 한길언, 노정환, 엄창중
- 일본판, 『맑스·엥겔스 선집』 9, 大月書店, 1954²²⁾ : 도유호, 립건상, 김석형
- 중국판, 『資本主義生産以前各形態』, 人民出版社, 1956²³⁾ : 백남운

12) 金洸鎭, 1937.

13) 김광진에 대해서는 홍종욱, 2016 참조.

14)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가 발표된 이후 박사점, 한홍수, 이청원, 김광진, 森谷克己 등은 백남운의 역사 인식을 공식주의라는 관점에서 비판한 바 있다. 방기중, 1992, 160-170쪽.

15)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6, 76쪽.

16) 김광진, 1955-89.

17) 도유호, 1956-3.

18) 김광진, 1956-56.

19) 편집부, 1957-1.

20)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8. 이 『토론집』은 남한에서 김광진·도유호 외, 1989로 재발간되었는데, 여기에는 최종적으로 14명의 원고가 게재되었다. 이 책의 서문은 1957년 6월 자료 되어 있지만, 실제 간행은 1958년 3월이다. 출판인쇄과학연구소, 1963, 353쪽. 북한은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반중과투쟁이 전개되었는데, 1957년 김일성종합대학과 과학원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집중지도 사업이 이루어진다(이경섭, 2023, 328-337쪽). 이 과정에서 1957년 김일성종합대학과 과학원에서 출간 예정이던 교과서나 저서 등은 집중지도 사업이 끝난 후에 간행되었다.

『제형태』가 포함된 마르크스의 遺稿는 1939~1941년 모스크바에서 『정치경제학비판 요강』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으며, 이 유고의 일부인 『제형태』도 이 시기 따로 출간되었다.²⁴⁾ 홉스봄에 따르면, 1952년 『제형태』 부분이 팜플렛으로 베를린에서 출판되고 1953년 전권(『정치경제학비판 요강』)이 출판되어서야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1938년 무렵 소련에서 『제형태』 부분만 따로 출간되기도 했으며, 이것이 1947년 일본어로 다시 번역되었다.²⁵⁾ 1952년 독일에서 간행된 팜플렛본도 헝가리어, 일본어, 이탈리아 등으로 번역되면서 읽히기 시작했다고 한다.²⁶⁾ 북한에 유입되었던 판본은 거의 처음 간행된 소련본과, 소련과 독일본 간행 이후 재간행된 일본의 大月書店본이 주류를 이루었던 듯하다. 중국본의 경우는 1940년에 간행된 소련본을 저본으로 번역한 1956년 북경 인민출판사 출판본이다.

김광진이 「삼국시대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하)」(『력사과학』 1956년 6호)에서 처음 『제형태』를 언급하고 있지만, 도유호가 김광진의 첫 논문을 비판할 때에는²⁷⁾ 『제형태』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제형태』가 북한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시기는 1956년 5월 무렵에서 11월 사이라고 생각된다. 백남운이 입수했던 人民出版社판, 『資本主義生産以前各形態』가 1956년 4월 1일 간행되었던 자료라는 점도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여겨진다.

김광진은 『제형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²⁸⁾

아시아의 종족사회는 집단적 소유형태를 그냥 남기고 있으면서도 그 위에 수립하는 전체적인 <統一體>가 나오고, 그것을 대표하는 유일한 人格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유일한 토지 소유자 또는 최고의 토지 소유자가 <통일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므로 공동체의 종족원들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로 된다. 그리고 이러한 종족에게 정복을 당한 피정복 종족들은 재산을 상실하고 그들은 정복자의 노예 또는 농노로 된다. 그러나 아시아적 형태에서의 노예제와 농노제는 그 자

21) Карл Маркс, 1940, *Формы, предшествующие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му производству*, Политиздат при ЦК ВКП(б).
 22)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 編, 1954, 『마르크스·엔겔스選集』 第9卷, 大月書店.
 23) 馬克思, 1956, 『資本主義生産以前各形態』, 人民出版社. 이 책은 1940년에 간행된 앞의 주 21)을 저본으로 번역하였다.
 24) 에릭 홉스봄, 2012, 131~136쪽; 마르셀로 무스토, 하태규 옮김, 2011, 「세계적 차원에서 [그룬트리세] 유포와 수용」,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들을 다시 생각한다』, 한울, 265~276쪽. 당시는 2차 세계대전 기간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때 소련에서 간행된 『정치경제학비판 요강』은 서구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25) 일본에 『제형태』가 처음 번역되어 소개된 것은 마르크스, 飯田貫一岡本三郎 譯, 1947, 「資本制生産に先行する諸形態」, 『歴史學研究』 129이다.
 26) 에릭 홉스봄, 2012, 134쪽. 마르셀로 무스토, 2011, 269쪽에서는 1939년 『제형태』가 러시아어로 번역되었다고 한다.
 27) 도유호, 1956.
 28) 김광진, 1956-6, 33-34쪽.

체의 종족 조직을 가장 적게 변화시킨다. 그것은 농업과 공업이 결합되어 있으며 집단적 소유형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복을 거치지 않고도 집단적 소유형태에서는 <매개의 사람들은 전연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에 불과하므로 그들 자신은 본질적으로는 공동체의 통일을 인격화한 사람의 재산이고 노예이다. 따라서 노예제는, 여기에서는 로동 제 조건을 파괴하거나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김광진은 이러한 『제형태』의 주요 명제에 기초하여 아시아에서는 종족 조직과 공동체적 소유를 그냥 남기고 있으면서도 ‘총체적 노예제 사회’가 성립한다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노예가 생산수단(토지)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그 자체가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점유자인 직접 생산자는 노예가 아닌 농노적인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총체적 노예제를 조선사에 적용할 때에는 몇 가지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첫째 총체적 노예제의 시각에서는 동양적인 토지국유제(또는 봉건사회)가 오랜 기간 남아 있는 아시아 사회의 농민은 토지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인민이 노예가 되며, 이는 봉건제적 역사까지도 노예제 사회의 역사로 치환될 우려가 있다. 둘째 총체적 노예제론의 관점에서 공동체원들을 노예로 설정한다면 총체적 노예와 전형적 노예의 이중적인 노예 제도로 현상되기 때문에 모순이다. 셋째 『제형태』의 분석 대상은 대체로 계급사회 성립 전의 종족사회를 대상으로 한 점, 넷째 『제형태』를 근거로 한다면 이미 지난 시절의 <아시아적 생산방식론>을 다시 등장시키는 혼란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²⁹⁾ 마지막으로 고대 동방 노예제 사회를 발전시켰던 대규모 관개 수리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거론하였다.

전반적으로 김광진의 『제형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분히 부정적인 분위기를 내포하는데,³⁰⁾ 『제형태』를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원전으로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는 “이 <유고>의 명제에 대한 때에 그것은 맑스의 초기 작품(1857-1858)이고, 맑스 자신이 그 <유고>를 가리켜 <초고적(初稿的)인 스케취>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유고>의 명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맑스주의 역사학의 전반적인 사상 체계와의 밀접한 연계 위에서 이 명제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맑스주의의 개별적인 문구에만 매달리고 맑스주의의 전체와 그 본질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김광진, 1956-6, 34 쪽)라고 표명하였다.

마르크스의 원전을 대하는 김광진의 태도는 마르크스 이론의 진전과 심화라는 관점에서

29)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어떠한 논리와 방식으로 개념화하던 본질적으로 아시아사회에 대한 특수하며 정제적인 인식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 일례로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둘러싼 1931년 레닌그라드 대토론회의 지배적인 견해였던 고데스의 ‘노예제가 결여된 봉건제 변종론’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백남운과 김광진, 리청원 등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각자의 논리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연구를 진행(홍순권, 1994)하였다. 위에서 김광진의 지적은 『제형태』의 발견과 유입으로 조선 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혼란이 다시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30) 김광진은 이 논쟁의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글(1958, 15-36쪽)에서는 『제형태』를 언급하지 않았다.

매우 타당한 입장이었다고 생각된다. 자본주의를 정점으로 한 경제적 사회구성체에 주목한 마르크스(엥겔스)의 역사관은 『독일이데올로기』(1846)와 『정치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서문」(1859)을 거쳐 『자본』(1867)의 간행으로 일단락되었다. 김광진은 『제형태』가 『정치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서문」(1859)이 출간되기 직전 연구 메모 형식의 手稿였기 때문에 마르크스 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³¹⁾ 그리고 『제형태』에 포함된 몇 개의 명제에 의거하여 <총체적 노예제 사회>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삼국시대 노예제론자들을 비판하였다(김광진, 1956-6, 30~38 쪽).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 합법칙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수성에 중점이 있으며, 조선 역사 발전에 일반적 합법칙성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다종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과 복잡한 현상에서 발현하는 그 나라의 특수성에 더 많은 주의가 돌려져야 한다고 보았다(김광진, 1956-5, 1~8 쪽).

김광진은 이러한 입장에서 삼국시대는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조기 봉건사회로 이행했다는 ‘노예제 결여론’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김광진의 노예제 결여론은 식민지시대에 이미 제기되었던 입론이었으며,³²⁾ 『제형태』가 수용되어 공동체와 소유의 문제, ‘총체적 노예제’라는 마르크스의 새로운 이론과 조선사의 ‘고대’라는 실재의 통일적 이해라는 북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과제를 충분히 해명할 수는 없었다. 김광진과 도유호의 논문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논쟁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후의 논쟁은 역사학자들이 전면에서 나서면서³³⁾ 매우 집중적인 토론의 양상으로 전개된다.

Ⅲ. ‘총체적 노예제’와 조선사의 ‘고대’

북한에서의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의 張本이라고 할 수 있는 백남운은 『토론집』에 토론 요지를 남기고 있다. 그는 『제형태』의 아시아적·고전고대적·게르만적 공동체 유

31) 이는 『제형태』가 지니는 마르크스 원전에서의 위상을 지적한 것으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김광진의 논문들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이론적 기반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32)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가 출간된 이후, 신진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백남운이 일원론적 역사법칙을 조선사에 적용시키는 데 급급하여 조선사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공식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방기중, 1992, 129~184쪽). 김광진은 「高句麗社會の生産様式-國家の形成過程を中心として-」(1937)에서 고구려가 5세기 이후 국가를 형성하여 봉건제 사회로 이행했다고 보았다. 이는 원시사회 이래 공동체적 요소의 강인한 잔존과 소유관계의 미발달 등 이른바 아시아적, 조선적 특수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1950년대 논쟁에서 김광진은 기본적으로 앞선 연구의 연장선에서 논문을 발표했으며, 고구려 봉건 사회 이행기를 2-3세기 무렵으로 조정하였다(김광진, 1958).

33) 논쟁을 시작했던 김광진은 당시 과학원 경제법학연구소 실장이었으며, 도유호는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소장이었다.

형의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조선 고대사회의 성격 구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공동체는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따라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는 관점에서 국가 성립의 여러 형태를 조망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아시아적 공동체는 공동체가 토지의 소유자이며 직접 생산자는 토지의 점유자인 토대 속에서 잉여노동이 발생하는 특수한 계급사회인 ‘총체적인 노예제’ 사회로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바로 조선의 노예제사회는 ‘아시아적 공동체’의 기본 구조가 고대적 공동체로 나아가지 않고 ‘총체적 노예제’ 사회로 진전했다는 것이다. 이 사회의 기본 특징을 첫째 공동체가 토지의 소유자이며, 둘째 공동체의 수장이 그 대표로서 실질적인 토지소유자이며 후일 토지 국유제의 대표자가 되며, 셋째로 수장이 ‘아시아적 공동체’의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인 점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하는 노예 소유 관계도 수장의 주위에 집중되는 것이라고 본다.³⁴⁾

이러한 백남운의 언급은 식민지시대 자신의 연구『조선사회경제사』(1933)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1937)를 새롭게 보완할 수 있는 전거로서 『제형태』를 이해했다고 보인다. 아시아적 공동체에서 등장한 총체적 노예제로부터 조선의 특수한 노예제가 발달하였으며, 더 나아가 아시아적 봉건제사회론으로 발전하였다는 계기적이며 일원적인 자신의 역사인식을 보강하기 위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에 백남운은 계급투쟁사에 입각한 조선사의 서술, 일제 식민주의 역사학과 조선인 특수 문화사관 비판, 원시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에 이르기까지 조선사의 기점을 해명하기 위하여 『조선사회경제사』(1933)를 저술하였다.³⁵⁾ 여기에서 조선사의 노예제 사회를 삼국시기로 규정하였지만 그의 조선 노예제 사회 서술은 공식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관점에서 조선사의 체계화를 시도할 때 경제적 사회구성에 따른 시대 구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제기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마르크스가 『정치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서문」에서 정식화한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부르주아적 생산양식을 조선사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백남운은 『제형태』의 ‘총체적 노예제’를 통하여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외면했던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문제³⁶⁾와 공식주의적 노예제 인식이라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듯하다. 아마도 이러한 입장에서 백남운은 『제형태』에 기반한 『조선사회경제사』의 改版 의욕을 드러냈지만³⁷⁾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백남운은 삼국시대 노예제 사회설의 입장에서 사회경제 구성과 관련한 토론회에 지속적으로

34) 백남운, 1958, 346~358쪽.

35) 백남운, 1958, 346~347쪽.

36)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대한 백남운의 인식은 그의 조선사 체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931년 레닌그라드 대토론회에서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봉건제의 특수 형태라고 규정한 고테스의 견해가 공식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아시아 사회의 노예제 결여론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세계사의 기본법칙에 입각한 조선사의 일원론적, 단계적 발전을 규명하려 했던 백남운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백남운은 원시공산제 사회-노예제 사회-아시아적 (생산양식으로서의) 봉건사회를 구상했으며, 『조선사회경제사』(1933)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1937)을 저술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방기중, 1992, 144~184쪽 참조.

37) 백남운, 1958, 358쪽.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토론집』 단계에서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선 인물은 립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그는 1956 년판 『조선통사(상)』의 고대사 집필자로 참여했는데,³⁸⁾ 『토론집』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제형태』의 고대 동방 사회 체계를 ①공동체적 관계의 잔존, ②공동체적 소유 형태, 즉 국가 소유 형태의 지배, ③공동체적 통일체로서의 최고 집단과 그를 인격화한 전제 군주에 대한 초주민의 예속화, ④공물제 혹은 집단적 노동형태로서의 수취, ⑤전제 정부 수중에 장악된 공공 사업 등을 특징으로 하는 총체적 노예제 사회라고 보았다. 또한 아시아적 사회 내지는 고대 동방 노예소유자 사회라는 것은 농촌공동체에 입각하고 있는 노예소유자 사회이며, 이 공동체에 토대하고 있는 전제주의와 공동체는 아시아적 사회를 고전적인 고대 노예소유자 사회와 구분하는 기본적 특징이라고 본다. 그리고 문제를 삼국의 역사가 어떠한 자기의 구체적 특수성에서 아시아적 형태의 노예제 사회를 관철하고 있는가로 보고서, 구체적인 사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검증하려는 자세를 취한다.³⁹⁾

그는 삼국의 주요 계급이 노예와 노예주, 소농민층 및 예속민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소농민층은 원시사회 말기에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공동체 농민층으로 국유적 토지 소유형태에서 세습적 토지점유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들이 국가에 부담한 공납과 부역은 봉건지대(地代)가 아니라 전제 국왕에게 예속된 농민이 공동체의 잉여 노동 부분을 바친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삼국의 ‘민’ 또는 ‘백성’은 곧 공동체 농민이며 이들은 동방적 형태의 노예제 사회에서 존재한다고 본다. 예속민층은 하호·속민·부용민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정복 전쟁의 결과 함락된 부락공동체 농민들로 소농민층과 기본적 성격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립건상은 강인한 공동체의 잔존과 그 위에 구축된 전제정치 아래에서 노예제는 필연적으로 가내적=가부장적 노예제와 공동체적=국가적 노예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고, 고전적 노예제가 등장하기 어려운 역사적 조건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리고 가내노예제로서도 노예제 사회의 사회 경제 구성이 관철된다고 주장하였다.⁴⁰⁾ 그는 또 지금까지 삼국을 원시사회를 토대로 성립한 첫 계급국가였다고 보았기 때문에 논쟁이 삼국의 노예제 유무에 집중되었지만 삼국에 선행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토론회의 과정에서 『제형태』는 노예론자들에게 이론적 전거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제형태』를 인용했던 김광진의 글에서도 일부 론자들이 ‘총체적 노예제’의 개념에 기초하여 아시아적 특수성 아래에 있는 조선에서 지배적인 공동체 관계가 남아 있고 상품-화폐 관계의 발생과 관개 수리 사업의 발전 없이도 노예제 사회가 성립

38) 『조선통사(상)』(1956)의 집필자는 립건상, 김득중, 김석형, 박시형, 전석담이었다. 립건상은 1장(원시 공동체 사회와 그 붕괴, 고조선)부터 4장(신라에 있어서의 봉건 관계의 발전)까지를 집필했다. 이준성, 2020, 137, 11~21쪽.

39) 립건상, 1958a, 86~156쪽.

40) 이에 대해서는 총체적 노예제론의 입장에서 가내적·가부장제적 노예를 해당 사회의 기본계급으로 보고, 이러한 노예제를 지배적인 경제형태로 규정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박경철, 1994, 220쪽.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비판하였기 때문이다.⁴¹⁾ 마르크스의 유고 『제형태』는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의 토론장에서 노예론자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토론집』 단계에서 주로 노예제 사회론의 입장에 선 연구자들이 『제형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²⁾ 예를 들어 피정복민-예속민의 계급적 성격을 『제형태』의 총체적 노예제 혹은 전반적 노예제의 개념 가운데에는 정복지의 예속적 우클라드도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나⁴³⁾ 삼국에서 피정복 부족 혹은 종족에게는 ‘총체적 노예제’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고, 그것이 예농적인 성격보다는 노예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며 동방과 아시아에는 이와 같은 노예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였다는⁴⁴⁾ 주장이 그러하다.

토론회에서 봉건제론자들은 『제형태』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면서 주로 고구려의 역사적 사례를 거론하며 봉건사회론을 주장하였다.⁴⁵⁾ 이상의 정황으로 보아 토론회는 『제형태』의 수용과 함께 삼국을 노예제 사회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우세하게 현상하였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토론회의 결과를 『토론집』의 「서문」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문제, 조선에서의 국가 성립 문제, 조선에서의 공동체 분해 과정의 문제, 노예제의 발생과 발전 문제, 삼국 시기의 계급계층 문제 등에서 여전히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으로 정리하였다. 「서문」은 고대 및 중세사 연구실 명의로 게재되었는데, 그렇다면 당시 연구실장인 박시형이⁴⁶⁾ 집필했을 가능성이 크다.⁴⁷⁾ 그리고 토론회의 두 가지 성과로 조선의 노예제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로마의 고대 노예제와 가까운 것으로 보던 견해들을 일소하였다는 점과, 삼국의 선행 시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사실⁴⁸⁾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토론의 새로운 전개를 암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5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역사연구소가 주관한 토론회 이후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저서 2권이 출간되었는데,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에서 펴낸 『조선사 개요』⁴⁹⁾와 립건상이 집필한 『조선사(1) 대학용』⁵⁰⁾이다. 이들이 주목되는 이유

41) 김광진, 1956-6, 33-38쪽.

42) 앞에서 언급했던 립건상, 1958a가 대표적이다.

43) 도유호, 1958, 68쪽.

44) 한길언, 1958, 184쪽.

45) 정찬영, 1958, 194-229쪽 및 채희국, 1958, 242-274쪽.

46) 박시형은 이 토론회에서 고구려-백제는 노예제 국가로, 신라는 국가 형성 시기를 4세기로 보면서 봉건 국가였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편집부, 1957-1, 90쪽.

47) 어찌면 토론회의 총평이라고 할 수 있는 「서문」의 내용은 당시 역사연구소 소장이던 김석형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48) 립건상, 1958a ; 정희영, 1958, 355-399쪽 ; 정찬영, 1958 등 참조.

49)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 1957년 12월, 1-722쪽. 이 책은 원시사회에서 개항까지 서술한다. 전체 30장으로 구성되었으며, 30,000부를 발행하였다.

50) 립건상, 1958년 6월(1958b), 1-357쪽. 서문 외에 7장으로 구성되었고, 내용은 3국의 통일까지 다루었다. 전체 9,500부를 인쇄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신라부터 조선 말기까지는 김세익, 1958(10월), 1-301쪽으로 간행되었다.

는 『조선사 개요』가 조기 봉건제 사회설의 입장에서 고조선 이후를 서술했으며, 『조선사(1) 대학용』은 노예제 사회설의 입장에서 고조선~삼국시대를 집필했기 때문이다.

[표 1] <『조선사 개요』와 『조선사(1) 대학용』의 목차 비교>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조선사 개요』(1957.12)	림건상, 『조선사(1) 대학용』(1958.6)
서문	서론
1 장 원시공동체 제도, 조선 제 종족, 계급사회의 발생	1 장 조선의 원시 공동체 사회와 그 붕괴
2 장 봉건 관계의 발생. 고조선과 3 국의 형성	2 장 초기 노예 소유자 국가 <고조선>국과 부여국
3 장 3 국의 발전. 봉건 관계의 장성	3 장 고대 3 국(고구려, 백제, 신라)의 형성
4 장 수당 제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고구려 인민의 투쟁	4 장 3 국의 발전
5 장 3 국의 문화	5 장 수나라의 침략을 반대하는 고구려 인민의 투쟁
6 장 신라의 의한 3 국의 통일	6 장 노예 소유자적 사회의 위기와 3 국의 통일
7 장 통일적 중앙 집권 국가 신라	7 장 고대 조선의 문화

『조선사 개요』는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의 조선사강좌 교원들이 공동 집필하였으며, 아마도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의 교과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⁵¹⁾ 『조선사 개요』의 삼국 및 통일기까지의 집필자는 1~6 장이 채희국,⁵²⁾ 7 장은 김석형이다.⁵³⁾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조기 봉건사회로 이행하였다는 입장에서 본문이 서술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사 개요』는 강좌제로 운영되는 역사학부 교원들이 공동 집필했다는 사실에서 강좌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이때 집필자로 참여한 박시형과 김석형 중 김석형이 강좌장으로서 『조선사 개요』의 집필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⁵⁴⁾ 『조선사 개요』의 시기 구분이나 조기 봉건사회설과 관련된 내용이 당시 김석형의 역사 인식과 연구들을 기반으로 집

51) 『조선사 개요』의 집필자들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빈, 2020을 참조.

52) 채희국(1918~1996)은 해방 이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사학과에 입학했으나, 졸업 전에 징집되어 해방을 맞이한다(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2003, 277~278쪽). 졸업연도는 확인되지 않지만, 북한 점령 하의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월북하였다(이정빈, 2020, 63~66쪽). 이후 북한의 고고학 연구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활동하였다.

53) 김석형은 7장과 16장(대농장주의 출현과 인민 생활의 령락)을 집필했는데, 통일신라와 고려 후기의 사회경제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와 같은 집필 부담은 같은 시기에 자신의 저서 『조선 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1957)의 저술 사정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4) 박시형은 1947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장이었으나(이정빈, 2020, 63쪽), 『조선사 개요』(1957) 간행 당시의 강좌장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1956년 1월 박시형은 초대 역사연구소 소장에서 물러나 역사연구소 고대 및 중세사 연구실장에 보임되었는데, 이는 역사학계에서 박시형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사실이라고 이해된다(이경섭, 2023, 328~332쪽). 그리고 박시형은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영향력 있는 견해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의 전근대 역사를 책임지는 조선사강좌 내부에서 김석형을 대체하는 인물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필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김석형은 1956년 1월 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으로 선임되는 무렵을 전후해서 「조선 봉건 사회에 있어서의 토지 소유 관계에 대하여」(『과학원 학보』 1955년 7호)⁵⁵⁾, 「조선의 노비」(『역사과학』 1956년 4호), 『조선 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과학원출판사, 1957), 「량반론」(『역사논문집』 3,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9)⁵⁶⁾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전근대 조선사를 거의 포괄하는 자신의 역사학 체계를 굳건히 세우게 된다. 이후 김석형의 조선사 인식은 북한 전 근대사 체계의 근간으로 오랜 기간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 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1957)의 「노비론」과 「양인론」에서 조선과 고려시대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삼국 시기가 봉건사회라는 자신의 입론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⁵⁷⁾

『조선사 개요』(1957)에서는 기원전 3세기의 고조선을 원시 공동체 사회를 벗어나 상당히 발달한 계급사회로 서술했으며, 고구려에서 공동체적인 사회제도가 존속했기 때문에 공납제적 착취를 실시하는 봉건적 생산방식이 지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동체적 우클라드가 존재하는 한편 노예적 처지의 노비가 존재하였으며, 농노적인 처지의 농민들도 발생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고구려의 조건에서 노예제가 지배적인 사회경제 구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농노적 우클라드가 지배적인 사회경제 구성으로 발달하였다고 서술했다. 이 시기는 미성숙한 봉건사회로서 공동체적 우클라드와 노예제적 우클라드 및 농노적 우클라드가 서로 투쟁하는 ‘조기 봉건사회’라고 규정하였다(『조선사 개요』, 59-62쪽 및 79-81쪽).

립건상의 『조선사(1) 대학용』은 공동체적 관계를 중시하면서 삼국시대 노예제 사회설을 서술하고 있다.

조선의 노예제 사회는 고전적 형태와는 특수하게 구분되는 형태로서 노예제 사회의 미숙한 발전 형태로서의 총체적 노예제 사회였다. 즉 (1) 소유 형태에 있어서 고전적 사적 소유 형태와는 구별되는 공동체적 소유 형태-국가적 소유 형태가 지배적이었다는 점, (2) 국가에 대하여 공물적 형식에 의한 수탈을 당하는 광범한 소농민들을 인정하나 그들은 본질상 공동체 농민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며 봉건적 농노층과는 구별된다는 것, (3) 노예의 수는 그리 많지 못하였으나 또 그들이 가부장적 혹은 국가적 노예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나 다(多)우클라드적인 이 사회에서

55) 이 논문은 농민의 신분에 천착하여 봉건시대의 계급 구성을 분석한 『조선 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1957)의 논지를 토지 소유 문제에서 보완하는 부록(249-295쪽)으로 함께 실렸다.

56) 1961년 4월 11일 국가 학위 학직 수여위원회는 김석형의 『조선 봉건 시대 농민의 계급구성』과 「량반론」(『역사논문집』 3,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9)을 대상으로 공개 심사를 실시하여 역사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편집부, 1961a, 86-88쪽). 여기에서 김석형의 연구를 “봉건적 신분의 기저로 되어 있는 사회 계급의 구성을 론증하고 조선의 장구한 봉건 시대를 통한 이들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밝힘으로써 조선 중세사 연구에서 주요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한다.

57) 김석형, 1957, 89-106쪽 및 193-225쪽.

그러한 노예제가 지배적 생산관계로 되고 있었다는 것, (4) 국가 형태에 있어서 전제 제도였다(11~12쪽).

「서론」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면서 고조선과 부여를 초기 노예 소유자 국가로, 삼국을 발전한 노예 소유자 국가로 서술하였다. 『조선사 개요』는 삼국 시기를 농노적(봉건적) 우클라드가 지배적 생산관계로 보았으나, 『조선사(1) 대학용』은 노예제가 지배적인 생산관계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특히 립건상은 『제형태』를 마르크스의 ‘천재적 로작’ 이라고 간주하고, “고대 동방 사회의 공동체적 소유 형태의 특수한 제 관계를 고전적 고대 사회의 기초로 되어 있는 사적 소유 형태에서의 제 관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그 특수성을 이론적으로 규정 지을 수 있게 하였다” 고 강조하였다.⁵⁸⁾ 이는 립건상으로 대표되는 삼국 시기 노예제 사회론자들의 『제형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결국 『조선사 개요』와 『조선사(1) 대학용』의 서술에서 1956년 토론회 이후 삼국 시기 노예제설과 봉건제설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형태』의 수용은 조선사의 ‘고대’ 논쟁에서 이론적으로나 역사적 실제의 분석에 매우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된다. 이제 이 논쟁은 김석형과 립건상의 집중 연구와, 노예제론과 봉건제론자 사이의 집체적인 토론으로 전개된다.

IV. 『토론집』 간행 이후 논쟁의 경과

『토론집』이 간행(1958년 3월)된 후, 립건상의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하여」(『력사과학』 1959년 2호)가 발표되었다. 이 글은 립건상의 주장을 서술하였다기보다는 『토론집』 간행 후 10여 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토론회의 논점들을 정리한 것이다.⁵⁹⁾ 『토론집』 이후 관련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토론집』에서 거론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토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일부 토론자들이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엔겔스에 의하여 정식화된 아시아적 제 특수성이 오직 노예제 사회의 특수성만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기본상 봉건제 사회의 제 특성으로도 이해되는 만큼, 그것만으로는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을 해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면서 고려나 조선의 구체적 역사를 가지고 연역적 방법으로 삼국 시기를 고찰하는 것이 정확한 연구 방법이라는 주장이다.⁶⁰⁾

립건상은 이 글에서 노예제와 봉건제의 이론적 문제, ‘총체적 노예제’의 개념과 조선사에의 적용 문제, 공동체와 소유 문제, 고대의 농민·下戶와 노비 등에 대한 논제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공동체적 소유 형태를 토대로 하여 성립한 전제국가는 전 주민을 노예적

58) 립건상, 1958b, 16쪽.

59) 립건상, 1959-2, 51-60쪽.

60) 립건상, 1959-2, 55쪽.

처지로 예측시킨 고대 동방 제국형의 노예제 사회= '총체적 노예제 사회' 라고 이해한다.

이렇듯 논쟁의 지점들이 형성된 상황에서 조선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와 토론이 요구되었다. 그 해결책으로 전문 연구자들을 소 그룹으로 조직하여 토론을 진행하면서 일정한 기일 내에 결론을 내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새로운 『조선통사』의 간행을 위해서 기한을 정하고서 연구와 토론을 진행했다고 보인다. 그렇게 하여 삼국 시기 봉건제 사회론을 주장하는 김석형과 노예제 사회론을 주장하는 림건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발표되고, 역사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전개되었다.

김석형은 1956년 1월 21일 과학원 제4차 총회에서 초대 소장이었던 박시형의 뒤를 이어 력사연구소 소장으로 선임되었지만, 195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되었던 삼국 시기 사회 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력사연구소 소장으로서 루마니아 방문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전개된 반종파투쟁의 여파 속에서 력사연구소 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1957년에는 반종파투쟁의 일환으로 김일성종합대학과 과학원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집중지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직적인 력사연구소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⁶¹⁾ 이후 1958년 3월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을 간행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회를 10여 차례 진행하다가 이를 총화하기 위한 집중 연구와 토론에 돌입한 것이다. 김석형과 림건상은 순차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 발표된 논문은 아래와 같다.

- 김석형, 1959, 「3국의 계급 제 관계-3국의 사회 경제 구성의 해명을 위하여-」, 『력사과학』 1959년 4호
- 림건상, 1960, 「김석형 동지의 논문 『3국의 계급 제 관계』에서 제기된 몇 가지 리론상 문제에 대한 의견」, 『력사과학』 1960년 1호
- 김석형, 1960, 「3국에 선행한 국가들과 종족들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0년 1호
- 림건상, 1960, 「조선에 존재한 노예제 사회의 시기 문제에 관하여」, 『력사과학』 1960년 2호(부록)
- 김석형·정찬영, 1960, 「우리 나라 노예 소유자 사회의 특성과 봉건 사회의 성립」, 『력사과학』 1960년 2호(부록)
- 김석형, 1960, 「조선 고대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리론상 문제」, 『력사과학』 1960년 3호

먼저 김석형은 「3국의 계급 제 관계」에서 조선사의 지역적 범위를 만주 일대와 조선 반도로 설정하고서 이 지역 종족들의 발전 불균형성을 고려하여 우리 역사의 첫 계급사회와 국가의 발생 문제에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 구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그나마 자료가 전하는 계급 제 관계의 문제부터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3국의 노비, 下戶와

61) 당시의 상황과 동향에 대해서는 이경섭, 2023, 328-346쪽 참조. 김석형이 력사연구소 소장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는 1958년부터라고 생각된다.

민, 공동체적 제 관계, 계급 제 관계와 착취제도 등에 관한 관련 사료들을 분석하였다.⁶²⁾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형태』에서 제시한 ‘게르만슬라브 사회’ 유형의 소유 관계가 삼국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 소유는 이중의 형태로서 국가적 소유 및 그와 병존하는 사적 소유로 나타나는데, 사적 소유는 국가적 소유에 제약된다고 본다. 이는 곧 삼국 시기가 봉건 사회라는 자신의 견해를 주장한 것이다.⁶³⁾ 나아가 삼국 이전 고조선과 마한 등이 계급국가였으며, 노예 소유자적 국가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제형태』의 ‘총체적 노예’는 아시아 사회에서 국왕에 대비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총체적 노예제 사회는 삼국과 결코 같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⁶⁴⁾

이처럼 집중 토론의 화두를 던졌던 김석형의 연구에 대하여 립건상은 주로 마르크스주의 원전에 입각한 이론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비판하였다. 우선 1882년 엥겔스가 마르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맥상 노예제에 가까운 예속인층을 묘사한 예속제를 의도적으로 ‘농노제·예속제도’라는 봉건적 농노제로 왜곡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석형은 삼국의 토지 소유 형태를 ‘개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적 소유자이며 공동체는 사적 소유의 전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원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게르만적 형태와 유사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제형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김석형이 『제형태』에서 그리스 로마 형태의 것을 게르만 형태의 것으로 바꾸어 잘못 인용했다는 것이다.⁶⁵⁾ 이는 김석형이 『제형태』라는 마르크스의 원전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다는 비판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원전 해석 문제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원전의 올바른 해석과 적절한 인용이야말로 그 주장이나 연구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김석형이 『제형태』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소유 관계를, 사회경제 구성의 유형으로 간주하고서 삼국의 그것과 즉자적으로 비교한 것은 연구상의 커다란 오류였다.

사실 김석형은 『제형태』를 마르크스가 아직 원시 공동체 사회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이 없었던 시기(1857~1858)에 집필한 저술이라고 언급하면서⁶⁶⁾ 『제형태』에 대해 약간의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태도는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을 노예제 사회로 보는 연구자들보다 ‘조기 봉건사회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려는 연구자들에게 나타난다.⁶⁷⁾ 『제형태』에서 본원적 소유의 세 가지 유형으로 아시아적, 고전·고대적, 게르만·슬라브적 형태가 제시되었고,

62) 김석형, 1959-4의 논지는 이미 『조선 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1957)에서 제시된 바 있다. 앞의 주 57) 참조.

63) 백남운은 김석형의 「3국의 계급 제 관계」의 논지가 『조선 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에서 이미 언급되었다고 지적하고, 마르크스주의는 연역과 귀납의 통일, 이 방법에 의한 구체적 사료에 대한 구체적 고찰이 필요하며 또 그렇게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판하였다(편집부, 1959-6, 69쪽). 백남운은 김석형의 연구가 역사적 사실 분석에 치중하여 이론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점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주의 역사 이론과 조선사의 역사적 실재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64) 김석형, 1959-4, 37-40쪽.

65) 립건상, 1960a.

66) 김석형, 1959-4, 38쪽. 이러한 사실은 이미 김광진에 의해서 지적된 바 있다.

67) 노예제 결여론의 입장에서 삼국 시기 봉건사회론을 주장했던 김광진이 대표적이다.

그 가운데 아시아적 형태에서 총체적 노예제가 언급되었기 때문에 『제형태』는 삼국 시기를 노예제 사회론으로 보려는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김석형은 립건상의 이론적 비판을 일부 수용했지만, 삼국이 게르만이나 슬라브의 봉건사회와 소유 관계에 있어서 유사하다는 견해는 유지하였다. 그러면서 이론적 근거로 새롭게 앵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의 8장 「게르만인의 국가 형성」 및 9장 「미개와 문명」을 제시하였다.⁶⁸⁾ 앞서 「3국의 계급 제 관계」에서 고조선과 마한을 노예 소유자적 국가라는 가설적 의견을 내놓았는데, 「3국에 선행한 국가들과 종족들에 대하여」에서는 고조선과 관련된 종족 문제로부터 『사기』와 『한서』, 『삼국지』에 기록된 고조선 관련 기사들을 매우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그 국가적 성격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이론적인 작업이 아니라 철저한 문헌고증 방법에서 실증적인 연구로 전개되었다. 이렇듯 역사적 사실들을 구명하는 데 주력했던 것과는 달리 고조선이 『제형태』의 ‘총체적 노예제’ 사회라고 선언하듯이 주장하고 있다.⁶⁹⁾

이어서 립건상⁷⁰⁾과 김석형(정찬영⁷¹⁾)은 삼국 시기 노예제설과 고조선·마한 노예제설의 입장에서 집중 토론의 성과들을 총화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무렵에는 조선사에서 노예 소유자 사회의 존재가 대부분 인정되었으며,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다.

립건상은 기원전 5~4세기 초기 노예제 사회가 형성(고조선, 이후 夫餘辰國)되었으며, 3국은 이를 계승하여 노예제 사회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이후 5~7세기에 이르러 급속한 생산력의 발전으로 노예제 사회가 붕괴한 것으로 이해한다. 특히 그는 고조선·부여·진국 시기의 토지 소유가 공동체적 공유 형태이며 씨족적 귀족집단을 대표하는 전제 국왕에게 속하였던 것으로 보고, 공동체적 농민의 잉여 노동은 공납 혹은 집단적 노력으로 국왕에게 수탈되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들 공동체적 농민은 본질상 전제 국왕의 재산이며 노예적 상태여서 노예제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사회를 ‘초기 노예제 사회’라고 서술한다.⁷²⁾ 립건상의 초기 노예제 사회는 『제형태』에서 언급된 ‘총체적 노예제’의 조선적 적용이었다.

김석형·정찬영⁷³⁾은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이 아시아적 형태에 가까운 노예 소유자 사회로 존재했으며, 뒤이어 부여·마한·진국 등이 성립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에서는 1세기 이후 원시 공동체 사회의 붕괴기에 발생한 공납적 관계와 농노적 관계가 노예제

68) 김석형, 1960-1, 70쪽.

69) 김석형, 1960-1, 84~85쪽. 종족 간의 관계에서 지배자가 된 종족집단이 피정복 종족을 그 총체로서 지배 통치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간단히 언급하였을 뿐이다.

70) 립건상, 1960-2(부록).

71) 김석형·정찬영, 1960-2(부록).

72) 립건상, 1960-2(부록), 5쪽.

73) 정찬영은 경성대학 사학과 제3회 졸업생으로(1949년 7월) 한국전쟁 시기 월북하여 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고고학 연구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고구려가 봉건사회였으며(1958 「고구려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대하여」), 고조선은 노예 소유자적 국가(1960-3, 「고조선의 위치와 그 성격에 관한 몇 가지 문제」)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석형과의 공동 집필 논문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고고학적인 해석 부분의 서술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와 병존하면서 서서히 중세 봉건적 예속 관계가 지배적인 사회경제 구성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삼국은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봉건사회로 과도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동방적 봉건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적인 성격의 ‘조기 봉건사회’가 필요했다고 이해한다.

이렇듯 립건상과 김석형으로 대표되는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립건상과 김석형이 『력사과학』 1960년 2호에 게재했던 논문들을 토대로 1960년 7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과학원 역사연구소 고대 및 중세사 연구실(실장: 박시형)에서는 노예 소유자 사회 시기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삼국 시기를 노예 소유자 사회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자는 립건상, 백남운, 리응수, 백숙일, 김유방, 최길성, 리창화 등이었으며, 봉건사회로 규정하는 연구자들은 김석형, 김광진, 정찬영, 채희국, 김세익, 리필근, 정성철 등이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토론집』 간행 이후 역사연구소가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집중 토론회에서 고조선·부여·진국 등은 노예 소유자 사회로 합의가 되었으나,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팽팽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연구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앞으로 이견을 보인 몇 가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적 대책이 필요하며, 토론회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⁷⁴⁾

그러나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는 열리지 않았으며, 새로운 논문도 발표되지 않았다.⁷⁵⁾ 다만 역사연구소의 주도로 정찬영과 김세익이 당시까지 진행된 논쟁의 내용들을 망라하여 정리한 글(이하 『론쟁 개요』)만이 발표되었다.⁷⁶⁾ 이후 역사연구소는 고대사 관련 주제로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 문제가 아닌 고조선 관련 토론회⁷⁷⁾를 수년간 개최한다. 이렇듯 더 이상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공개적인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에서 이후 논쟁이 집단적이며 공개적인 과정 속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귀결된 데에는 1962년판 『조선통사』 간행이라는 현실적 과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당시 북한 역사학계의 입장에서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의 해명은 조선 역사 체계의 통사적 서술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정권 수립 후 최초의 통사였던 1956년판 『조선통사(상)』는 출간 당시부터 고조선 사회의 성격, 삼국의 국가 형성 시

74) 편집부, 1960-5, 63쪽.

75) 김석형, 1960-3이 발표되었으나, 이 글은 립건상, 1960-1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한 답변이며, 이미 앞서 발표한 논문들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였을 뿐이다.

76) 정찬영·김세익, 1961-3, 34-66쪽. 이들은 개요를 정리하면서 가능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더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해당 내용들은 개별 주제들로 나누어 연구자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정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삼국 시기 봉건사회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향후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77) 편집부, 1961c; 편집부, 1961d. 고조선 문제는 고고학 연구가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회가 열릴 무렵부터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주관으로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었다. 편집부, 1960, 「우리나라 고대 종족과 국가 발생에 관한 과학토론회」, 『문화유산』 1960년 1호; 편집부, 1960, 「“고고학상으로 본 고조선”에 대한 과학 토론회」, 『문화유산』 1960년 3호.

기 및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⁷⁸⁾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논의는 현상적으로 김광진과 도유호의 논쟁으로 촉발되었으며, 마르크스의 유고 『제형태』가 새롭게 수용되어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런데 논쟁은 격렬했지만, 합의된 결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조선통사(상)』(1962)의 「서문」에서 여전히 고대 국가에 관한 문제들이 논쟁 중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 역사학계의 또 다른 공식적인 견해는 아래와 같은 입장으로 나타났다.

3국이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생산력의 발전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었으며 그것에 선행하여 뚜렷한 계급 국가로서 고조선이라는 노예 소유자 국가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결과 3국을 노예 소유자 사회로 주장하던 견해들이 점차로 극복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 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금년 중으로 출판을 예정하고 집필하고 있는 새로운 『조선통사(상)』에서는 이 모든 문제들이 그 동안의 성과와 추세에 비추어 3국을 고조선 기타의 고대 국가들을 계승한 봉건 국가로 서술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⁷⁹⁾

지금까지의 논쟁이 『론쟁 개요』로 정리될 때에도 노예 소유자 사회의 존재 시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 이후 공개적인 토론회나 논의도 없었지만 『조선통사(상)』(1962)에서 삼국은 봉건 국가로 서술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조선사의 ‘고대’ 논쟁이 결과적으로 노예 소유자 사회와 봉건 사회의 시기를 구분하는 선에서 봉합되었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곧 마르크스주의 역사 이론과 조선사의 역사적 실재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과학원 역사연구소는 1962년 11월 새로운 『조선통사』(상)를 간행했다. 여기에서는 노예 소유자 사회에 고대 조선의 국가들로 고조선·부여·진국을 포함했으며, 봉건사회에서 삼국의 성립을 서술하였다. 관련 목차와 집필자는 아래와 같다.

제1편 원시 사회

제1장 원시 공동체 사회 : 김용간

제2편 노예 소유자 사회

제2장 고대 조선의 국가들 : 립건상, 리지린, 김석형

78) 편집부, 1956-6, 91쪽.

79) 편집부, 1961-5, 7쪽.

제3편 봉건 사회

제3장 봉건 국가-3 국의 성립 : 채희국, 립건상, 김석형

목차상으로 확인되는 시대구분에서 김석형으로 대표되는 봉건론자들이 논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문」에서 언급하듯이 고대 국가들에 관한 문제에서 논쟁 중인 문제들이 있으며 이 책에서는 간략히 다루었다고 했다. 그러나 고려 이전 시기 원고의 최종 심사를 김석형이 했으며,⁸⁰⁾ 김석형이 주도한 삼국 시기 봉건사회론의 관점에서 시대구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 논쟁의 통합이 역사연구소 소장 이었던 김석형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력사과학』의 지면에서 이루어지던 논쟁은 「론쟁 개요」⁸¹⁾를 전후해서 역사연구소 내부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며, 그것을 주도하여 마무리한 연구자는 김석형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선통사(상)』(1962)을 새롭게 간행하면서 북한 역사학계에서 김석형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 논쟁의 과정에서 수용된 『제형태』는 마르크스의 공동체 인식에 기반한 아시아적 사회 및 총체적 노예제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는 저술이기 때문에 북한의 역사학자들에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많은 영향을 주면서 논쟁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김석형과 김광진 등의 삼국 시기 초기 봉건사회론자들의 시각에서는 『제형태』가 조선사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불완전한 체계성을 지닌 원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삼국 시기 노예제사회의 연구자에게는 조선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그 독자성(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원전으로 더 높게 기대되었다.

이는 립건상의 논쟁 참여와 이후 연구의 행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립건상은 스스로 말했듯이 “구체적 해당 사료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맑스주의 창시자들의 아시아적 공동체에 대한 이론, 공동체에 토대한 국가에 대한 이론, 사회 발전의 계기성에 관한 이론 등을 통일적으로 결합시키는데 노력하여 과거 조선 사회 발전의 역사적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려고”⁸²⁾ 노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제형태』 등의 마르크스주의 원전에 근거하여 조선 고대 노예제 사회의 역사상을 밝히고자 진력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조선통사』(1962)의 간행으로 좌절되었지만, 『제형태』에서 보다 다양하고 풍성하게 언급된 공동체에 대한 언설들은 이후 부곡제 연구의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⁸³⁾ 이러한 사실은 어쩌면 립건상이 북한 역사학계 내부에서 보다 완고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에 대비해 논쟁을 조직하고 주도했던 김석형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로서 어떠한 모습

80) 고려 이후의 원고 심사는 박시형이 담당하였다.

81) 정찬영·김세익, 1961-3.

82) 립건상, 1960-2(부록), 1쪽.

83) 립건상, 1963.

을 보였던 것일까.

우리 당은 항상 우리들에게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원리를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대 동방 노예 소유자 사회의 이론도 우리는 우리의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문제는 일반적 합법칙성이 어떻게 우리 나라의 특수적 조건에서 구현되었는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성은 어디 있는가를 밝혀 내는 데 있다.⁸⁴⁾

김석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시각에서 조선사의 특수성(독자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 논쟁에서는 “고대 동방 사회에 관한 이론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점을 택하여”⁸⁵⁾ 적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제형태』의 총체적 노예제가 고조선과 마한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는 곧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조선사라는 현실 가운데 조선의 역사적 현실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⁸⁶⁾ 이해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특수한 조건과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성을 중시하는 당시 김석형의 역사 인식은 일국사적 역사 인식의 강화와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된다.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의 결과 전면적으로 등장한 주체사상은 북한 역사학의 궤적을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으로부터 굴절시켜 갔다.⁸⁷⁾ 이러한 북한 역사학의 전개와 굴절의 과정에서 김석형의 역할은 절대적⁸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제형태』의 수용과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은 김석형과 북한의 역사학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으로부터 굴절되어 이탈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이자 분기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학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84) 김석형·정찬영, 1960-2(부록), 32쪽.

85) 김석형, 1960-1, 91쪽.

86) 김석형은 『조선 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 「서론」(10쪽)에서 자신의 연구 방법론을 “주어진 사실은 주어진 사실대로의 자기의 체계와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여기서 ‘제관계’를 끄집어냄으로써만 그 분석은 과학적으로 될 수 있고, 또한 오늘 당이 우리 학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저 배격하여야 할 교조주의적 방법과 인연을 끊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명제를 창조적으로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조선 봉건사회를 구명하기 위해서 조선·고려시대의 분석에서 시작하여 삼국시대에 이르는 ‘경험적으로 실증’ 하는 방법론의 입장이었다.

87) 전반적인 북한 역사학의 전개 과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기동, 1999, 135-224쪽 참조.

88) 「세계적인 력사학자 김석형」, 『로동신문』, 2018년 8월 26일 5면.

【참고문헌】

-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6, 『조선통사(상)』, 과학원출판사
- 과학원 역사연구소, 1958,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틈집』, 과학원출판사; 김광잔도
유호 외, 1989,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틈집』, 일송정
- 과학원 역사연구소, 1962, 『조선통사(상)』, 과학원출판사
- 金洸鎭, 1937, 「高句麗社會の生産様式-國家の形成過程を中心として-」, 『普專學會論集』 3; 김
지현 譯, 2015, 「고구려 사회의 생산양식-국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
연구』 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 김광진, 1955, 「조선에 있어서의 봉건제도의 발생 과정(상·하)-노예 소유자적 구성의 준비 여하
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과학』 1955년 8·9호
- 김광진, 1956, 「삼국시대의 사회 경제구성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상·하)」, 『역사과학』
1956년 5·6호
- 김광진, 1958, 「조선 원시 사회 봉건의 특수성과 봉건적 우클라드의 발생과정」, 『삼국 시기의 사
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틈집』, 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과학원출판사
- 김석형, 1957, 『조선 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 과학원출판사
- 김석형, 1959, 「3국의 계급 제 관계-3국의 사회 경제 구성의 해명을 위하여-」, 『역사과학』
1959년 4호
- 김석형, 1960a, 「3국에 선행한 국가들과 종족들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0년 1호
- 김석형·정찬영, 1960b, 「우리 나라 노예 소유자 사회의 특성과 봉건 사회의 성립」, 『역사과학』
1960년 2호(부록)
- 김석형, 1960c, 「조선 고대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리론상 문제」, 『역사과학』 1960년 3호
- 김세익, 1955, 「(서평)『조선중세사(상편)』에 대하여」, 『역사과학』 1955년 1호
- 김세익, 1958, 『조선사(2) 대학용』, 교육도서출판사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사강좌 편, 1957, 『조선사 개요』, 국립출판사
- 노태돈, 1991, 「북한 학계의 삼국시대사 연구동향」, 『북한의 고대사 연구』, 역사학회 편, 일조각
- 도유호, 1956, 「조선 역사상에는 과연 노예제사회가 없었는가」, 『역사과학』 1956년 3호
- 도유호, 1958, 「삼국 시대는 봉건 시대가 아니다」,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틈집』,
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과학원출판사
- 림건상, 1955, 「(서평)『조선고대사』에 대하여」, 『역사과학』 1955년 1호
- 림건상, 1958a, 「삼국의 사회경제 구성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
한 토론틈집』, 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과학원출판사
- 림건상, 1958b, 『조선사(1) 대학용』, 교육도서출판사
- 림건상, 1959, 「삼국 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하여」, 『역사과학』 1959년 2호
- 림건상, 1960a, 「김석형 동지의 논문 『3국의 계급 제 관계』에서 제기된 몇 가지 리론상 문제에

- 대한 의견, 『역사과학』 1960년 1호
- 림건상, 1960b, 「조선에 존재한 노예제 사회의 시기 문제에 관하여」, 『역사과학』 1960년 2호(부록)
- 림건상, 1963, 『조선의 부곡제에 관한 연구』, 과학원출판사
- 마르셀로 무스토, 하태규 옮김, 2011, 「세계적 차원에서 [그룬트리세] 유포와 수용」,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들을 다시 생각한다』, 한울
- 박경철, 1994, 「북한에서의 '고중세 사회경제구성' 인식에 관한 일고찰」,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 김정배 편, 대륙연구소출판부
- 방기중, 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역사비평사
- 백남운, 1958, 「백남운 원사의 토론 요지」,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 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과학원출판사
- 에릭 홉스봄, 이경일 옮김, 2012, 「『정치경제학비판 요강』의 발견」,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까치
- 이경섭, 2023, 「'만주' 표상의 조선고대사」, 『한국고대사연구』 112
- 이기동, 1999, 『전환기의 한국사학』, 일조각
- 이정빈, 2020, 「『조선사 개요』(1957)의 早期 봉건사회설과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사강좌」, 『사학연구』 137
- 이준성, 2020, 「1950~60년대 『조선통사(상)』 간행과 북소 역사학계 갈등」, 『사학연구』 137
- 장세운, 2004, 「해방 직후 북한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과 편찬-조선력사편찬위원회 간행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검토-」 『韓國史學報』18
- 정찬영, 1958, 「고구려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대하여」,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 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과학원출판사
- 정찬영, 1960, 「고조선의 위치와 그 성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문화유산』 1960년 3호
- 정찬영·김세익, 1961, 「조선 노예 소유자 사회의 존재 시기 문제에 대한 논쟁 개요」, 『역사과학』 1961년 3호
- 정희영, 1958, 「삼국 시기 이전의 국가 발전에 대한 고찰」,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 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과학원출판사
- 채희국, 1958,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을 해명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 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과학원출판사
- 출판인쇄과학연구소, 19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목록 1945-1960』
- 편집부, 1955, 「해방후 10년 간에 발표된 역사 논문 및 단행본 목록」, 『역사과학』 1955년 8호
- 편집부, 1956, 「(학계소식)『조선통사』(상)에 대한 합평회」, 『역사과학』 1956년 6호
- 편집부, 1957, 「(학계소식)삼국시기 사회경제구성에 관한 토론회」, 『역사과학』 1957년 1호
- 편집부, 1959, 「(학계소식)삼국시기 사회경제 구성의 성격에 관한 토론회」 『역사과학』 1959년 6호
- 편집부, 1960, 「우리 나라에 존재한 노예 소유자 사회 시기 문제에 관한 과학 토론회」, 『역사과학』 1960년 5호

- 편집부, 1961a, 「(학계소식)김석형 저 『조선 봉건 시대 농민의 계급구성』과 『량반론에 대하여』, 『력사과학』 1961년 3호
- 편집부, 1961b, 「(권두언)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이후 우리 력사 학계가 거둔 성과」, 『력사과학』 1961년 5호
- 편집부, 1961c, 「“고조선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학술 토론회」, 『력사과학』 1961년 5호
- 편집부, 1961d, 「“고조선의 위치와 령역”에 대한 학술 토론회」, 『력사과학』 1961년 5호.
-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사학사연구반, 2003, 『북한의 역사 만들기』, 푸른역사
- 한길연, 1958, 「조선에서의 노예 소유자적 사회-경제 구성체에 관하여」,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 과학원 력사연구소 편, 과학원출판사
- 홍순권, 1994, 「1930년대 한국의 맑스주의 역사학과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 『동아논총』 31
- 홍종욱, 2016, 「보성전문학교에서 김일성종학대학으로-식민지 지식인 김광진의 생애와 경제사 연구-」, 『역사학보』 232

【Abstract】

The Acceptance of *Pre-Capitalist Economic Formations* and the End of Disputes over “Ancient Era” in the Circles of Historical Studies in North Korea

Lee, Kyoungsup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hen the circles of historical studies had disputes over the social and economic composition of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in North Korea, Marx's posthumous work titled *Pre-Capitalist Economic Formations* was introduced into the country. At that time, the disputes were divided between the slavery society theory and the feudal society theory during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Pre-Capitalist Economic Formations* was actively embraced by the researchers who argued the slavery society theory for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Representative members were Lim Geon-sang and Baek Nam-woon. They accepted Marx's “general slavery system”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identity theory of Joseon history. Arguing the early feudal society theory for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Kim Seok-hyeong expressed his position that the specific and historical reality of Joseon history should come before theoretical issues. Their disputes came to an end after *The Complete History of Joseon* was published. The book explains Gojoseon and Buyeo as an ancient society of slave owners and the Three Kingdoms as a feudal society. In this process, the theoretical grounds of *Pre-Capitalist Economic Formations* were formally adopted in the ancient history of Joseon. The process and conclusion of the disputes over “Ancient Era” centered around the creative application of Marxism-Leninism to the history of Joseon and provided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the later historical studies of North Korea to get refracted and distorted from Marxist historical studies.

Keywords : Historical Studies in North Korea, *Pre-Capitalist Economic Formations*, general slavery system, Kim Seok-hyeong, Lim Geon-sang